

나주 혁신도시 교통사고 '주의보'

신호등 등 교통 안전시설 정상작동 안돼 작년 한해 8건 발생...최근 2명 사상자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혁신도시)에 '교통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대를 오가는 공사 차량과 입주 기관 직원들의 통행이 빈번하지만 신호등 등 교통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이다.

11일 오전 11시 나주시 금천면 나주혁신도시 내 우정사업정보센터 앞편도 4차선 교차로에서 송모(46)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황모(53)씨의 1t 화물차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에 타고 있던 황씨의 어머니 임모(80)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황씨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험은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신호등이 점멸되었던 점으로 미뤄 황씨와 송씨가 서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같이 나주혁신도시에선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곳에서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8건. 문제는 교통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0일 오후 2시40분께 나주혁신도시 내 스크램블렉스(초·중·고) 앞 도로에서 서모(50)씨의 탱크로리가 갓길에 정차된 김모(53)씨의 레미콘을 추돌해 서씨와 김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등 이곳에서만 지난해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형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는 현재 나주혁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신속 공사가 진행되면서 화물차·레미콘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한 각종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대형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준공 뒤 교통시설물 관리는 나주시가 맡게 되고 전남지방경찰청이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주차장·도로·인도 등 각종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호등이 설치돼 있더라도 전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를없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나주혁신도시로 출·퇴근하는 우정사업정보센터·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또 올해 15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데, 자칫 대형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안지 않을 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나주경찰 관계자는 "12일 나주혁신도시 내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혁신도시 시행 3사와 나주시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오는 3월 말까지 나주혁신도시 내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등을 우선 가동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호등을 정상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졸업 고3 교실 마지막 종례

11일 오전 졸업식을 마친 광주 동아여고 3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 담임 교사와의 마지막 종례 시간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유치원 학부모 한달 교육비 14만4615원

전국 평균 10만4900원 웃돌아

광주지역 유치원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YMCA 전국연맹의 '전국

유치원 교육비 및 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 유치원 432곳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한 결과, 민5세 정부 지원금 22만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월평균 교육

비는 10만4900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4만4615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양천구의 추가 부담이 평균 27만125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14만7500원)와 강남구(11만7500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전의 월평균 추가 납부비 역시 16만5122원이나 됐고, 경기도 용인시(10만2533

원), 수원시(10만2400원) 등도 10만 원을 넘겼다. 개별 유치원으로 놓고 보면 서울 성동구 한 유치원의 교육비가 3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의 또 다른 유치원이 3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의 일부 유치원은 보조금을 제외한 수업비가 0원이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조기유학생 453명 부유층 많은 남구 '최다'

광주에서 조기유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가 광주에서 유난히 학구열이 높는데다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013년 교육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학년도 광주지역 유학생 수는 453명으로 학생 1만명당 19.1명이 유학을 떠났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13명, 광산구 99명, 서구 91명, 동구 31명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31명으로 조기유학이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중학생은 127명, 고등학생 95명이었다. 특히, 남구지역의 초등학생 조기유학이 두드러졌다. 2010년 56명, 2011년 52명, 2012년 58명 등 해마다 50명이 넘

작년 교육통계 분석 자료
초등생이 절반 이상 차지

었다. 지난해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에서 남구는 43.3명으로, 광주 전체 평균 22.4명의 2배에 달했다. 유학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남구지역의 조기유학 증가는 부모의 높은 학구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립학교가 풀려 있는 남구는 '광주의 8학군'으로 불릴 정도로 명문학교를 형성, 의사와 교수 등 부유층을 분산시키며 들어들었다.

이들은 자녀의 성적이 최상위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녀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유학을 선택하는 것

으로 보인다.

자녀를 유학 보낸 남구의 한 학부모는 "시험 때마다 1등급의 악몽 때문에 호흡기관 증세까지 보여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유학을 선택했다"며 "주입식 위주인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유학생 수는 2004년 598명에서 2006년 724명까지 늘었다가 해마다 감소해 2010년(491명)이후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학생 수는 지역별 거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되돌아오는 학생 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2분 / 해질 18시 11분
달돋이 15시 56분 / 달질 05시 13분

구름 낀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포근하겠다.

광주	구름많음	-3/8℃
목포	구름많음	-2/6℃
여수	구름많음	0/6℃
나주	구름많음	-5/8℃
완도	구름많음	-1/7℃
구례	구름많음	-6/8℃
강진	구름많음	-5/8℃
매남	구름많음	-4/7℃
장흥	구름많음	-5/8℃
순천	구름많음	-2/9℃
영광	구름많음	-5/6℃
진도	구름많음	-3/6℃
전주	구름많음	-4/7℃
군산	구름많음	-4/6℃
남원	구름많음	-3/7℃
혁신도	구름많음	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0.5~1.5m 높음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5m 1.0~2.5m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목포 00:16 06:5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5m 여수 08:07 01:3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2.0m 20:11 14:15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민번호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씨						
최저/최고	-2/8	0/9	-2/10	-3/10	-2/8	3/6

대출자 10명 중 7명 "학자금 대출 받았다"

대학 졸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봤다는 조사결과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17~27일 대출자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5%(797명)가 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대출자 1명이 진 빚은 평균 1445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보면 300만~600만원 이상(16.7%), 900만~1200만원 미만(12.9%), 600만~900만원 미만(11.7%), 1200만~1500만원 미만(10.3%)의 분포를 보였다.

원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답한 사람은 25.2%(201명)였으며, 대출금을 모두 갚는 데 평균 4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는 응답자 596명은 매달 평균 22만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3.9%)은 연체 경험이 있었다.

학자금 대출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빠른 취업을 위한 문지마 지원'(45.5%), '자신감과 취업의욕 상실'(29.9%), '연봉 등 경제조건 고려해 진로 변경'(29.5%)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떠나는 중국여행!!

상해/항주/황산 4일	769,000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869,000
상해/영파/신선거/설두산 4일	799,000
상해/설두산/신선거/주가각 5일	869,000
상해/곤명/석림/구향 5일	1,270,000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1,290,000
상해/계림/양삭 5일	1,140,000

불포함 : 여권및개인경비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99,000
선착순 20명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399,000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규슈 3박4일	189,000~
항공 일본고급 료칸및 특급호텔숙박!! 규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959,000
플렉스 장가계/천문산 4일 [금요일출발]	1,05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989,000
플렉스 장가계/천문산 5일 [월요일출발]	1,089,000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34,000~

※all 포함, 장금(합숙기준)